

보도 시점 2026. 9. 16.(수)
회의 시작(11:00) 이후

배포 2026. 9. 15.(화)

외국인 추납제도 개선에 이어 사회보장 전반 불합리한 요소 전면 점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발족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건복지 행정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6일(수)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시 중구)에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국내 거주기간 요건 부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및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개선 추진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정상화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민간위원) 보건·복지·인구 분야 전문가 6인

(정부위원) 정책기획관·복지정책관·인구아동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지역필수의료정책관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자격 요건이 급속한 사회 변화(외국인·복수국적자 증가 등)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만큼, 유사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자체 점검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내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을 이번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계기로 함께 발족하여, 사회보험, 사회보장급여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제도를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여 6개반* 및 주요 산하기관 사업·민원부서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제도 개선 협의체로 구성·운영('26.9~10월)한다.

* **총괄반**(반장: 기획조정실장), **홍보반**(반장: 대변인), **사회복지사업반·인구사회서비스사업반·보건의료사업반·지역필수공공사업반**(반장: 각 실장)

특히,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발굴 과제,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현장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허점·꼼수, ▲편법·부당이득, ▲반복민원 사례 위주로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1차 회의와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거쳐 선정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무공직자 논의, 국민제안 창구 접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새로 발굴한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외국인 적용 개선, ▲기초연금 수급 자격으로 국내 거주기간 요건 부과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국민연금은 외국인으로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추후납부 제도를 적용 받고 있으나, 외국인수급자 본국 중 상당수가 추납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추납 이용이 불가능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에 현재 당연가입, 반환일시금 제도에만 적용 중인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기간 생활을 하다 국내 입국 후 거주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며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일정 기간의 국내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2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종 선정된 과제 중 내부 지침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와 더불어,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밀하고 공정한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 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요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방영식	(044-202-2310)
		담당자	사무관	김우람	(044-202-2303)
담당 부서 <TF운영>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2250)
		담당자	사무관	김준범	(044-202-2253)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겸 사회보장제도
공정성 점검·개선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요**

☐ (일시) '26.9.16.(수) 11:00 ~ 13:00(120분)

☐ (장소)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시 세종대로19길 16)

☐ (참석자) 총 10명

○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 기획조정실장, 연금정책관·지역필수의료정책관,
기획조정담당관·인구정책총괄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 (민간)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황영민(법무법인 새록)·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동민(백석대 사회복지학부), 최영준(연세대 행정학과),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위원 불참

☐ (주요 논의사항)

①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추진경과 및 1차 과제 추진현황

②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2차 과제 발굴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안)